

恥齋 李範世의 生涯와 交遊

李恩英*

|| 차례 ||

1. 머리말
2. 생애
3. 교유의 양상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직전 관직에서 물러나 자정의 길을 택한 恥齋 李範世(1874~1940)의 생애와 교유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치재는 土門勘界使로 활약한 二雅堂 李重夏(1846~1917)의 외아들이다. 만 15세에 문과에 급제한 그는 을사늑약 직후부터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관료로서의 저항적 삶을, 경술국치 후에는 독립자금 모금, 언론사와 신간회 활동을 통한 일제에 대한 투쟁 등 망국민으로서의 저항적 삶을 살았다.

치재는 교유했던 인물들에 대해 경술국치 전후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함께 신학문을 공부하다 망명을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인물들과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이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국내에 남아 있던 인물들과 함께 망국에 대한 슬픔과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픔을 시로 토로하는 모습이다. 그밖에 치재는 이상설을 비롯한 양명학자들과 교유를 가진 사실도 확인되었다.

주제어 : 恥齋, 李範世, 二雅堂, 李重夏, 李相高, 李始榮, 일제강점기

1. 머리말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nan_gurum@hanmail.net

일제의 침략 야욕이 표면화되던 구한말부터 관료들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거처를 택했다.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해야 했던 관료들의 거처 선택은 경술국치 후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때 관료들은 크게 나누어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했다. 하나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며 自決 또는 관직에서 물러나 自靖이나 抵抗을 하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제 치하에서 관직생활을 이어가면서 물질적 보상을 받는 대신 철저히 그들의 선전도구로 이용당하는 길이었다.

그 중 관직에서 물러나 자정의 길을 택한 관료 출신 중 한 사람이 恥齋 李範世(1874~1940)이다. 치재는 구한말 두 차례에 걸쳐 土門勘界使로서 국경 문제로 만난 청나라 사신을 향해 “吾頭可斷, 國疆不可縮.”이라며 강력하게 국토 수호에 대한 다짐을 피력했던 二雅堂 李重夏(1846~1917)의 외아들이다. 그는 만 15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가 전도가 창창했던 인물이지만 경술국치 직전 30대 중반의 나이로 관직에서 물러나 자정의 길을 택했다. 이러한 치재는 李相高·李始榮과 함께 南村의 세 천재로 불렸다. 그로 인해 이상설과 이시영을 거론할 때면 함께 이름이 거론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의 생애와 교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텍스트는 1975년 치재의 아들 李興鍾이 원고지 필사본을 복사해서 발간한 『恥齋集』¹⁾을 기저로 한다. 연구는 먼저 치재의 생애를 관료로서의 저항적 삶과 망국민으로서의 저항적 삶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치재와 교유하다 해외로 떠난 亡命者들과 국내에서 치재와 여생을 함께 보낸 留民者들로 나누어 그의 교유양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李範世, 『恥齋集』(후손 소장, 1975)

* 『치재집』에는 후손이 기록해둔 張數가 있다. 맨 끝장이 175로 되어 있어 『치재집』은 총 175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8과 168이 각각 2번씩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치재집』의 맨 끝장의 175는 본래 177이어야 맞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후손이 기록해둔 숫자에 따라 장수를 기록하였다.

2. 생애

2.1 관료로서의 저항적 삶

李範世(1874~1940)의 자는 士儀이고, 호는 喬庭恥齋이며, 본관은 全州이다. 세종의 第五子인 廣平大君 李璵의 후손으로, 5대조는 弘文館應教를 지냈고 文學과 清白으로 추앙 받은 李顯謨이다. 고조는 僉中樞 李義福이고, 증조는 贈內部協辦 李老淵이며, 조부는 延豐縣監을 지낸 贈內部大臣 李寅植이다. 부친은 1885년(고종 22)과 1887년(고종 24)에 청나라와 국경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土門勘界使로서 백두산에 다녀온 二雅堂 李重夏이고, 모친은 大司成 曹雲承의 딸로 貞夫人에 봉해진 昌寧曹氏이다.²⁾

1874년(고종 11) 12월 4일 1남 2녀 가운데 외아들로 태어났다. 1889년(고종 26) 만 15세에 謁聖試 文科에 급제한 후, 1890년(고종 27) 假注書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³⁾ 1894년(고종 31) 弘文館副校理 등을 역임하고,⁴⁾ 1899년(광무 3)에는 弘文館侍讀에 임명되었으며,⁵⁾ 1900년(광무 4)에는 秘書院丞에,⁶⁾ 1901년(광무 5)과 1902년(광무 6)에는 비승원승 겸 掌禮院掌禮를 지냈다.⁷⁾ 1904년(광무 8)에는 文獻備考纂輯委員에 임명된데 이어 中樞院

2) 이은영, 「二雅堂 李重夏의 自靖詩 研究」, 『국제언어문학』 제34호, 국제언어문학회, 2016, 179-180면, 186면 참조.

3)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1889) 8월 5일 기사 <경무대에 나아가 일차 유생 전강을 행하였는데 제술로써 강을 대신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7년(1890) 1월 17일 좌목 <가주서 홍순구를 개차하고 후임에 이범세를 제수하였다> 참조.

4)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7월 14일 기사 <이교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참조.

5) 『승정원일기』, 고종 36년(1899) 12월 14일 좌목 <홍문관 시독에 이범세를 임용하였다> 참조.

6) 『승정원일기』, 고종 37년(1900) 2월 13일 좌목 <비서원 승에 이범세를 임용하였다> 참조.

7) 『승정원일기』, 고종 38년(1901) 5월 22일 좌목 <겸임 장례에 비서원 승 이범세를 임용하였다>; 고종 39년(1902) 2월 10일 좌목 <비서원 승에 이종완 등을 임용하였다> 참조.

議官에 임용되었으며, 1905년(광무 9) 文獻備考 편집이 끝나면서 찬집위원에서 해임되었다.⁸⁾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27일 前 議政 趙秉世 포함 50명이 늑약 파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릴 때 동참하였다.⁹⁾ 그 후 11월 30일 함께 상소를 올린 대신들 절반 이상이 憲兵隊長의 설득에 넘어가 물러갔다. 그러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치재는 조병세 포함 30여명과 함께 12월 1일까지 이어진 항변시위에 끝까지 참여했다.¹⁰⁾

1906년(광무 10) 비서관 승 겸 禮式院掌禮에 이어 겸 太醫院副卿에, 같은 해 11월에는 侍講院分侍讀에 임명되었다.¹¹⁾ 그리고 1907년(융희 1)에는 中樞院副贊議에 제수되었다.¹²⁾ 1909년(융희 3) 2월 『國朝寶鑑』 監印委員으로 차하되었으며, 4월에는 奎章閣副提學에 임용되는 동시에 勅任官에 敍任되었다.¹³⁾ 같은 해 9월 『국조보감』 편찬 완료로 편찬 부서가 해체될 때 규장각부제학에서 물러났으며, 10월 『국조보감』 찬집에 힘쓴 공로로 勳4등에 서훈되

8) 『승정원일기』, 고종 41년(1904) 3월 9일 좌목 <문헌비고찬집 위원에 비서관 승 이범세 등을 임명하였다>; 고종 41년(1904) 8월 13일 좌목 <중추원 의관에 정3품 이범세 등을 임용하였다>; 고종 42년(1905) 12월 23일 좌목 <문헌비고속찬위원회에서 이범세 등을 해임하였다> 참조.

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128)「時局ニ關スル報告」 祕第105號(1905.11.27.) <別紙>[趙秉世外 四十九名の 上疏文]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159)「表勳院ノ警戒并趙秉世自殺未遂ノ件」 祕第112號(1905.12.01.) <別紙>[表勳院會合에서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끝까지 항변한 시위자 명단] “前承旨 李重夏ノ子 李範世”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1) 『승정원일기』, 고종 43년(1906) 윤4월 27일 좌목 <비서관 승에 정3품 강해를 임용하였다>; 고종 43년(1906) 5월 17일 좌목 <비서관 승에 정3품 이범세 등을 임용하였다>; 고종 43년(1906) 11월 8일 좌목 <시중원 분시중에 정3품 신형우 등을 임명하였다> 참조.

12) 『승정원일기』, 고종 44년(1907) 4월 6일 좌목 <의정부 주사에 6품 이철규를 임용하였다> 참조.

13)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1909) 2월 17일 기사 <박제순 등을 《국조보감》 감인관에 임명하다>; 순종 2년(1909) 4월 21일 기사 <정봉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참조.

고 太極章을 하사받았다.¹⁴⁾

당시 치재가 찬집에 힘쓴 『국조보감』은 역대 임금의 善政을 모아 후세 임금들이 교훈을 삼도록 편찬한 編年體의 역사서로, 세종 때부터 찬집된 『국조보감』을 합하여 총 90권 28책으로 완성된 책이다. 그 공으로 받은 태극장은 1900년 훈장에 대한 조례를 발표할 때 文官의 훈장을 태극장으로 처음 명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¹⁵⁾ 경술국치일인 1910년 양력 8월 29일¹⁶⁾을 끝으로 더 이상 서훈으로 내려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치재가 받은 태극장은 대한제국 순종황제로부터 받은 서훈이다. 이는 경술국치 전후 일제에 협력하고 조선총독부에서 받은 작위나 서훈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치재는 1909년 규장각부제학을 끝으로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처럼 치재는 을사늑약부터 표면화되던 관료로서의 저항적 삶을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2.2 亡國民으로서의 저항적 삶

관직에서 물러난 후부터 치재는 자정적 삶을 지향했다. 그런데 당시 규장각제학에 재임 중이던 부친 이아당에게¹⁷⁾ 경술국치 직전인 1910년 6월 이토 히로부미가 掌禮院卿을 제수하였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개성의 穆淸殿과 水原의 華寧殿에서 지내던 제사를 폐하고, 각 궁에서 치러지던 祭享을 毓祥宮에서 함께 享祀하도록 하고, 山川壇의 祭는 社稷에서 지내도록 하였는데, 그 일은 모두 장례원과 관련된 일이었다. 이는 제사를 폐하거나 합쳐서 향사하는 일에 대한 반대 여론을 雅望이 있는 이아당이라면 쉽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

14)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1909) 9월 25일 기사 <《국조보감》 편찬에 참여한 관리들을 해임시키다>; 순종 2년(1909) 10월 23일, 기사 <《국조보감》 편찬한 당사 이하들을 표창하다> 참조.

15) 『승정원일기』, 고종 37년(1900) 23월 18일 좌목 <훈장에 대한 조례를 반포할 것이므로 훈장의 이름과 뜻을 미리 풀이하여 준다는 조령> 참조.

16) 『승정원일기』, 순종 4년(1910) 7월 25일 좌목 <한창수 등에게 상전을 내렸다> 참조.

17) 이은영, 위의 논문, 180-183면 참조.

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아당은 끝내 사직을 하면 대한제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또 직을 맡게 되면 수백 년을 이어오던 조종의 神明에게 죄를 짓는 결과가 될까봐 1개월이 넘도록 번뇌를 거듭하였다. 이때 치재가 부친에게 사직을 강력히 간하였고, 이아당은 치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¹⁸⁾ 당시 장례 원경에 나아가지 않은 최종 결정은 이아당 자신이 내렸지만, 이아당의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치재의 강력한 간언이었다.

그 후 치재는 경술국치 직후 규장각제학에서 물러난 후 일제가 주는 은사금과 合併記念章을 물리친 부친을 모시고 1911년 음력 3월 16일 한양을 떠나 고향인 양평으로 돌아갔다.¹⁹⁾ 당시 치재는 양평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아래의 시 「盡室搬移于楊根舟中漫吟」²⁰⁾을 읊었다.

(상략)

念時空灑袁安淚 시절을 생각하며 부질없이 袁安의 눈물을 흘뿌리고
處遠徒懷范老憂 먼 곳에 거처하며 한갓 范老[范仲淹]의 근심을 품네
差喜頭銜無與競 다소의 기쁨이라면 職銜[頭銜] 겨룰 일 없는 것일지니
龍門釣客更何求 龍門의 낚시꾼이 다시 구할게 무에 있으랴

위의 시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치재의 심사를 알 수 있다. 이아당이 전도 창창한 아들과 함께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치재 또한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아가 일찍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자정적 삶을 택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父子의 결심은 亡國이라는 치욕적

18) 黃玿, 『黃玿全集』(아세아문화사, 1978) 下, 「梅泉野錄」 卷之六, 1378면. <隆熙四年庚戌(六月)> “以李重夏爲掌禮院卿, 重夏力辭以免. 時議廢開城穆清殿, 水原華寧殿, 合各宮享祀于毓祥宮, 山川壇于社稷. 其事皆關禮院, 而博文以重夏有雅望, 必欲議出其手, 遂除院卿. 重夏欲辭之, 則拂博文意, 出仕, 則壞數百年典禮, 獲罪祖宗神祇, 徊皇煩懊者歷月. 其子範世力諫, 重夏慨然抗疏, 力辭再三, 竟遞.”

19) 이은영, 위의 논문, 183-186면 참조.

20) 李範世, 『恥齋集』, 「盡室搬移于楊根舟中漫吟」, 4b면.

현실 앞에서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직 관료의 마음에 동요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치재는 後漢 때의 袁安이 어린 天子와 권력을 專橫하는 외척들 때문에 朝會 때마다 國事가 걱정스러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망국에 대한 고뇌로 눈물을 흘렸다. 宋나라 명신 范仲淹이 조정을 떠나 먼 江湖에 있으면서 임금을 걱정했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치재는 임금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조정에 있어도 근심, 물러나도 근심이었다. 그래서 치재는 한 가지로 위안을 삼고자 했다. 바로 더 이상 관직생활을 하면서 승진이나 좌천 여부 등의 직함을 다룰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낚시꾼이 되어 망국민으로서 은둔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낚시꾼의 삶을 다짐하는 속에 원안의 눈물과 범중엄의 근심은 치재 가슴 속에 더 넓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치재의 본격적인 망국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양평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²¹⁾ 치재는 자결이나 망명을 통한 저항도 생각했다. 그러나 연로한 부친과 眼盲이 된 老母를 모셔야 하는 외아들이자, 대를 이을 아들을 두지 못한 독자로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할 책임 때문에 자결을 할 수도, 망명을 떠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던 그는 호를 恥齋로 바꾸었다.²²⁾

1914년 나이 40에 무남독녀를 얻었고, 1915년 돌을 맞이하는 딸을 위해 『新千字』를 만들었다. 그리고 1916년 再從兄 李範翼의 둘째 아들 李興鍾으로 후사를 삼았다.

1917년 부친이 생을 마감하였다. 이때 치재의 망국민으로서의 저항적 삶의 단면이 드러난 일이 있다. 바로 부친 묘소 앞의 床石에 쓰인 “有韓正憲大夫掌隸院卿完山李公重夏之墓, 配貞夫人昌寧曹氏祔左”에 대한제국을 뜻하는 ‘韓’자가 쓰였다는 것이다.²³⁾ 이는 이아당의 유언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치재 입장에서는 부친의 유언도 따라야 하겠지만 일제치하에서 생을 이

21) 李範世, 『恥齋集』, 「恥齋遺稿序[鄭寅書]」, 1a면. “庚戌屋舍以後, 奉尙書公歸楊根丙舍, 治農爲生.”

22) 李範世, 『新千字』, 국립민속박물관, 2012, 66면 참조.

23) 이은영, 위의 논문, 200면 참조.

어갈 자손들에 대한 염려가 조금도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염려를 뛰어넘어 부친의 상석에 ‘韓’자를 넣은 것은 치재의 저항정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일이다. 따라서 부친 상석의 ‘韓’자는 이아당의 항일정신이면서 동시에 치재의 항일정신을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1923년 자식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했다. 그리고 1925년 『時代日報』에서 洪命憲가 編輯局長으로 있을 때 잠시 사장직을 지낸 일이 있다.²⁴⁾ 그 후 1927년 月南 李商在(1850~1927)가 民族單一主義를 표방하며 일제에 대한 투쟁을 목표로 新幹會를 창립하였다. 당시 신간회는 독립운동가들과 의식 있는 지식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신간회에서 치재는 1929년 支會長 등을 새로 선출할 때 비밀리에 힘을 보탤다.²⁵⁾ 이를 통해 그가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전개와 신간회를 통한 일제에 대한 투쟁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1934년 12월 4일 회갑 때 부인이 술자리를 마련코자 하였다. 그런데 桑田 碧海를 겪으면서 온통 슬픔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치재에게 있어 회갑잔치를 벌이는 일은 좀처럼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11월 17일 집을 떠나 도봉동 天竺寺에 가서 20일을 머물다 돌아왔다. 이때 치재는 천축사에서 같은 詩題²⁶⁾ 아래 총 17수의 시를 지었는데 아래는 그 중 한 수이다.

老態龍鐘開七年 노인네 물골로 늙고 병든 지 7년
回頭往規轉淒然 뒤돌아보니 지난 세월 더욱 처량기만 하니

24) 박혜령·함한희, 『(20세기 어머니)이석희의 삶과 근대이야기. 1』, 국립민속박물관, 2013, 66면 참조.

* 『개벽』 제63호(1925-11-01) <在京言論機關一覽> 在京言論機關一覽 “『時代日報』…… ▲社長 李範世 ▲編輯局長 洪命憲”(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5)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7』 <신간회경서지회의 상황에 관한 건>(1929.06.25.)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26) 李範世, 『恥齋集』, 「是歲臘月四日, 卽余六十一初度也. 家人欲設酌識喜, 顧余滄桑餘生, 百感彌中有可悲無可喜, 如例開讌, 受人祝賀尤覺不安, 乃於至月十七日, 不告家人, 驅車出惠化門, 至敦巖里下車, 行行到道峯洞口, 聞天竺在近, 直至寺中求一宿, 住持金能成分外款待, 仍留二旬得句隨錄」, 100b면.

縱能延壽終何補 목숨을 이어간들 끝내 무슨 도움이 되랴
 尙此圖存己可憐 이처럼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내가 가련키만 하네
 星散曉風悲舊社 별이 새벽바람에 흩어지면 옛 모임 생각나 슬퍼지고
 草滋秋露感先阡 풀숲에 가을 이슬 무성하면 선친에 대한 느껴움이 이는데
 妻兒不識余心苦 처자식은 내 마음 속 괴로움은 알지도 못한 채
 漫記弧辰欲設筵 부질없이 생일을 기억하고 잔치를 벌이려 하네(17수 중 제 13수)

위의 시를 통해 치재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도 가련하기 짝이 없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치재는 거친 땅에서 난 것이나마 아래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그들에게 자신이 베풀 일을 생색내는 일이 없었다.²⁷⁾ 그리고 독립운동에 몸소 가담치는 못했지만 국내에서 陰으로 族姪 松居 李喜鍾(1876~1941)과 함께 독립자금을 거둬 들인 사실이 있다.²⁸⁾

이처럼 뒤에서 시대일보사와 신간회에서의 활약 및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독립자금을 거둬들이는 등 망국민으로서의 저항적 삶을 살던 치재는 1940년 10월 17일 충청북도 沃川에 갔다가 갑자기 客死를 하면서,²⁹⁾ 집에 殯所도 차리지 못한 채³⁰⁾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치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묘소는 경기도 양평 葛山面 倉垈里 葛谷先塋에 자리하고 있다.

연희전문학교 강사이자 큰 妹弟의 동생인 鈍山 鄭寅書(?~?)³¹⁾는 치재의 생애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27) 李建昇, 『海耕堂收草』(서울대 규장각본) 卷4, 「士儀承宣(範世)次余送從子還國詩韻復用其韻而和之」 51b면. “卑田與下澤, 不訪守謹恪”
 28) 김영복, 『법률신문』(2012.02.06.), 「(10) 한역 육법전서 초고」 참조.
 29) 鄭寅普, 『舊園鄭寅普全集』5(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舊園文錄』2, 「書恥齋李公壙誌銘後」, 243면. “今世庚辰十月十七日, 公客沒湖西沃川, 以喪歸楊根下焉.”
 30) 鄭寅普, 앞의 책, 『舊園文錄』6, 「恥齋李丈葬後一日作」, 131-132면. “倉猝夷衾在認可, 歸喪俗忌不賓室, 斯人蕭條乃如此, 乃令後死滋悼怛.”
 31) 『삼천리』 제10호(1930.11.01.) 기사 「新進學者 總評(一)」, 延禧專門學校 教授層」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당시 文苑의 무리들은 (치재와) 더불어 대적할만한 자가 드물었다. 公[李範世]은 특히 詔書[內制]의 문장을 잘해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笙鏞과 黼黻³²⁾로 황제를 보좌하여 태평성대 이름은 장차 公에게 달려있다고들 하였는데, 바다가 뿔밭으로 갑자기 변하면서, 金馬玉堂의 벼슬이 東陵³³⁾ 西臺³⁴⁾로 바뀌고 말았다. 재주는 있었으나 운명이 따라주지 않았으니, 예로부터 어찌 恨함에 공과 같은 자가 있을 것이며, 어찌 더욱 슬퍼할만한 자가 있으랴.”³⁵⁾

이처럼 일찍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치재는 재주는 있었으나 운명이 따라주지 않아 관료로서도 망국민으로서도 한결같이 저항적 삶을 살던 중 객사까지 하면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인보가 치재의 생에 대해 “인생이란 죽음에 있어 이름을 온전히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人生有死貴完名]³⁶⁾고 말한 것처럼 치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이름에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은 고결한 삶을 살다 갔다.

부인은 司諫院大司諫中樞院議官 등을 지낸 晏坡 鄭恒朝(1844~1924)의 딸이다. 슬하에 養子 李興鍾과 李鍾惠(1915~2002)에게 출가시킨 외동딸 菊軒 李石嬪(1914~생존)가 있다.

저서로는 『恥齋集』과 『新千字』가 있다. 1975년에 간행된 『치재집』에는 치재가 남긴 십여 권에 달하는 저술 가운데 아들 이흥중이 가려 뽑은 詩文이 각

32) 생용과 보불(笙鏞과 黼黻) : 笙鏞은 생황과 큰 종으로 임금의 음악을, 黼黻은 임금이 예복으로 입던 下衣인 袞裳에 놓은 도끼와 ‘亞’자 모양의 繡를 말한다. 곧 임금을 잘 보좌하는 훌륭한 신하라는 뜻.

33) 동릉(東陵) : 秦나라의 東陵侯 召平이 진나라가 망하자 布衣로 가난하게 살면서 長安城 青門 즉 東門 밖에서 외밭을 일구며 유유자적하게 隱士의 생활을 즐겼다.

34) 서대(西臺) : 宋나라 端宗 때의 節士 謝翱의 유적인 子陵臺의 별칭. 文天祥이 元나라에 대항해 군사를 일으키자 사고가 鄉兵 100여 명을 거느리고 합세하였다. 그런데 문천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대에 올라 그의 신주를 마련한 뒤 통곡하면서 招魂의 노래를 부르고 「西臺慟哭記」를 지었다.

35) 李範世, 『恥齋集』, 「恥齋遺稿序[鄭寅書]」, 1b면. “當時文苑輩行, 可與敵者鮮矣. 公尤長於內制之文, 人謂笙鏞黼黻貢飾皇猷, 將在於公, 海桑忽變, 金馬玉堂換以東陵西臺. 有才無命, 終古何恨而如公者, 豈非尤可悲者耶.”

36) 鄭寅普, 위의 책, 『舊園文錄』6, 「恥齋李丈葬後一日作」, 127면.

각 1책씩 수록되어 있다.³⁷⁾ 『新千字』는 치재가 돌을 맞이하는 외동딸을 위해 만든 교재이다. 여타의 『천자문』과는 달리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지혜, 즉 균형 있는 세계관과 우주관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인문교육서이다.³⁸⁾ 2012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影印本으로 간행되었다.

3. 교유의 양상

치재와 교유했던 대표 인물 가운데 치재와 함께 남촌의 세 천재로 불리던 溥齋 李相高(1870~1917)과 省齋 李始榮(1869~1953)³⁹⁾을 비롯한 友堂 李會榮(1867~1932), 是堂 呂準(1862~1932, 초명 祖鉉), 耕齋 李建昇(1858~1924), 滄江 金澤榮(1850~1927) 등은 해외로 망명을 떠나 亡命者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稼軒 朴豊緒, 松居 李喜鍾, 東江 金穉漢, 鈍山 鄭寅書, 爲堂 鄭寅普, 蘭谷 李建芳(1861~1939) 등은 국내에서 치재와 함께 留民者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3.1 亡命者들과의 교유

치재와 교유하다 망명을 떠난 대표 인물로는 치재와 함께 남촌의 세 천재로 불리던 이상설과 이시영을 비롯해 이회영, 여준, 이견승, 김택영 등이 있다.

치재와 이상설 가문은 대를 이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며,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웃해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이상설의 학문에 힘입어 자신의 학문을 면려하였다.⁴⁰⁾ 치재가 이상설 뿐 아니라, 이시영과 함께 자

37) 李範世, 『恥齋集』, 「恥齋遺稿序[鄭寅書]」, 1b면. “公富著述多, 棄置不收, 尙有散稿數篋. 編之可十餘卷, 而其子興鍾君貧, 不能刊全稿, 只選詩文各一冊, 將付劖劓.”

38) 李範世, 『新千字』, 국립민속박물관, 2012, 67면 참조.

39) 박환, 「李會榮과 그의 民族運動」, 『國史館論叢』 제7집, 1989, 232면 참조.

40) 李範世, 『恥齋集』, 「哀溥齋」, 104a면. “憶從少小近隣居, 日夕賴君資益余. 直道見期

란 곳은 회현동 언저리인데, 그곳은 南村이라 불리던 곳으로 少論의 집성촌이었다.⁴¹⁾

치재는 만 11세 때인 1885년 이상설과 함께 8개월 동안 新興寺에서 합숙하면서 漢文, 수학, 영어, 법학 등 신학문을 공부했다.⁴²⁾ 그 후에도 치재는 이상설과 꾸준히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이는 치재가 이상설이 『日文六法全書』를 漢譯한 글의 後識를 也園 朴喆熙(1877~1944)를 대신해서 지은 아래의 「書溥齋手筆漢譯日文六法全書後(代朴也園)」를 통해서 확인된다.

“위의 法學을 번역한 草稿는 옛 벗 溥齋 李相高이 손수 쓴 것이다. 일찍이 갑진년(1904)과 을사년(1905) 사이에 부재와 동지 너덧 사람이, 每周 모여서 六法 諸書를 講討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일본어[和文]에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漢文으로 번역을 해서 열람하는 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자, 부재는 해외에서 바쁘게 10년을 보내다 죽고 말았다. 떠도는 중에 중유하던 벗 是堂 呂準, 友堂 李會榮이 서로 이어 異域에서 죽었고, 省齋 李始榮은 영락하여 떠돌고 있어, 이생에서 한 번 볼 수 있는 말미조차 없다. 오로지 恥齋 李範世와 松居 李喜鍾만 여전히 고국에 있는데, 매번 예전에 서로 마주하던 때를 말함에 미치면 흐느낄 따름이다.”⁴³⁾

『한역일문육법전서』는 이상설이 국내에 있을 때 국제정세를 알려면 국제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본어로 된 국제관계에 관한 법령을 漢文으로 번역한 친필 초고이다. 일본 서적이 어떤 책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 책의 제10장 干涉과 제11장 國際爭議調和方法 두 장을 번역한 12쪽의 얇은

師友竝, 通家講好弟兄如.”

41) 박혜령·함한희, 위의 책, 49면 참조.

42) 박환, 위의 논문, 232면 각주 13) 참조.

43) 李範世, 『恥齋集』, 「書溥齋手筆漢譯日文六法全書後(代朴也園)」, 149b-150a면. “右法學譯草, 故友李君溥齋手筆. 嘗於甲辰乙巳之間, 溥齋與同志四五人, 約以週會講討六法題書, 以和文之不能, 人皆得解, 譯以漢文, 用便閱覽者也. 既而時移世變, 溥齋栖遑海外者十年竟死. 旅次從遊諸友呂是堂李友堂相繼歿于異域, 李省齋瑣尾流離, 此生無由一見. 惟李恥齋松居尚在故土, 每語及前日相對, 歔歔而已.”

서첩이다.⁴⁴⁾

위의 글을 통해 치재는 20세 때 이상설·여준·이회영·이시영·이희종 등과 함께 국제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이상설은 을사늑약 직후 趙秉世 등과 함께 늑약 파기 상소를 올릴 때에도 치재와 함께 하였다.⁴⁵⁾ 상소문을 올린 직후 이상설은 자결을 시행했다가 한 달 만에 살아나자⁴⁶⁾ 1906년 망명을 떠났다. 그 후 이상설은 1907년 고종의 밀서를 갖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正使로서 副使 李儁과 李瑋鍾과 함께 파견을 떠났다.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힘쓰다 1917년 니콜리스크에서 病死하였다.

사실 치재는 이상설이 고종의 밀서를 갖고 헤이그에 파견되었을 때 그와 동행하고 싶어 했으나⁴⁷⁾ 여러 가지 사정으로⁴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친밀하게 교류하던 이상설이 망명을 떠난 후 치재는 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을 뿐 더 이상의 교류를 하지 못했다. 이는 아래 치재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哀溥齋」⁴⁹⁾를 통해서 확인된다.

自君一出信并希	그대가 보내준 한 통의 편지와 함께한 희망
幾望天涯欲奮飛	얼마나 바랐던가, 하늘가에서 떨쳐 날기를
未許執鞭親尙在	부친이 계셔서 말채찍 잡는 일에 가담치 못했지만
終期携手子同歸	기필코 손을 잡고 그대와 함께 돌아오길 기약했었네
今來莫遂餘生願	지금에 와서 끝내 여생의 소원 없어졌으니

44) 김영복, 『법률신문』(2012.02.06.), 「(10) 한역 육법전서 초고」 참조.
 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128)「時局ニ關スル報告」 祕第105號(1905.11.27.) <別紙>[趙秉世外 四十九名の上疏文]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46) 黃玿, 『黃玿全集』(아세아문화사, 1978) 下, 「梅泉野錄」 卷之四, 1275면. <光武九年乙巳(十一月)> “前詹事李相高, 怔悶悲鬱, 求死不得, 乃之鍾街, 向衆人痛哭, 歷陳國家喪亂之由, 人臣當死之義. 投身於地, 觸石而倒, 頭碎血湧, 因昏絕不省. 衆昇而歸, 浹月始甦.”
 47) 鄭寅普, 위의 책, 『舊園文錄』6, 「恥齋李丈葬後一日作」, 131면. “渺渺故人手巾節, 欲往從之心徒苦, 親喪甫終又存沒, 周甲之壽我何有.”
 48) 각주 22) 참조.
 49) 李範世, 『恥齋集』, 「哀溥齋」, 103b면.

此世從知萬事違 이 세상 모든 일이 어긋났음을 알겠네
 已矣九原難復作 끝났구려, 저승이라 되살아나기 어려울 터
 臨風太息淚交揮 바람결에 장탄식을 하노라니 눈물만 줄줄(7수 중 제6수)

치재는 이상설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고 당장은 부친이 계셔서 직접 독립 운동에 가담치 못하지만 기필코 분명히 펼쳐 일어나 이상설과 함께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을 여생의 소원으로 간직하며 살았다. 그런데 치재는 1917년 8월에 사망한 부친의 죽음에 앞서 이상설의 부고를 들었다. 이에 치재는 이상설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자 했던 여생의 소원이 어긋나버렸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그 후 부친이 생을 마감하였지만 치재는 믿고 의지할 이상설이 없는 곳으로 眼盲이 된 노모와 어린 딸을 두고, 또는 함께 떠날 수가 없었다.⁵⁰⁾ 그런데 실상 치재는 臂痛이나 頭風 및 오래 병을 앓은 사실 등⁵¹⁾을 통해 건강도 그리 녹록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병도 치재가 부친 사후에 망명을 떠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재와 신학문을 공부하며 교유하던 또 한 명의 남촌 천재 이시영은 1910년 말 西間島로 떠났다. 아래는 치재가 망명객 이시영에게 지어 보낸 시 「用前韻寄李省齋(始榮)」⁵²⁾이다.

念昔從游好 옛날 중유하며 즐기던 때를 생각하자니
 曾無旬月隔 일찍이 열흘에서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었네
 携笈蕭寺日 책 상자를 짊어지고 맑은 사찰에서 낮을 보내고
 提燈苧岷夕 등불을 들고 苧洞 고개에서 저녁을 보냈었네
 那知萬里別 어찌 알았으랴, 萬里 밖 이별로
 卅載勞相憶 삼십 년을 서로 그리워하며 힘겨워할 줄을

50) 박혜령·함한희, 위의 책, 50면 참조.

51) 李範世, 『恥齋集』, 「病中寄金東江」, 27b면; 「左臂甚痛夜不能眠吟得一首寄示稼軒」, 38a면; 「稼軒見和臂痛韻又以其韻賦落齒一首寄示仍和以送」, 38a면; 「余患頭風久不能出門稼軒寄詩相問因次其韻以謝」, 53a면; 「李美斯歲前以一詩寄示余因病久後始和」, 73a면; 「以風丹滿面漲紅旬餘見苦病中消受無方吟得七絕」, 82a면.

52) 李範世, 『恥齋集』, 「用前韻寄李省齋(始榮)」, 55b면.

이시영은 1910년에 망명을 떠났고, 치재는 1940년에 생을 마감했다. 삼십년을 서로 그리워했다는 구절을 통해 위의 시는 치재가 생을 마감할 무렵에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밤낮도 가리지 않고, 서로 만나기를 아무리 길어도 열흘, 또는 최대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을 정도로 잦은 교류를 가졌다. 그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두 사람은 이시영이 망명을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삼십년 동안 편지 왕래도 없이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⁵³⁾ 따라서 위의 시 또한 이시영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게 교류가 잦던 인물과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삼십년을 지냈으니, 치재의 끝없는 그리움은 더욱 짙어져갈 수밖에 없었다.

치재가 교류한 인물로는 이시영의 형 이회영도 있다. 함께 신문학을 익혔던 이회영은 1911년 서간도로 망명을 떠났다. 중국 곳곳을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펼치던 이회영은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을 재정비하기 위해 上海에서 만주로 잠입하는 길에 들린 大連에서 일본 경찰에 포로로 잡힌 후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 이때 일제는 자신들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시신을 火葬까지 시켰다. 그래서 치재는 1934년에 재로 변한지 두 돌 되는 이회영을 애도하며 아래의 시 「哀友堂(李會榮)」⁵⁴⁾를 지었다.

君去泉臺已二朞	당신이 저승에 가신지 이미 두 돌
音顏已邈欲何爲	목소리와 얼굴마저 아득해졌으니 어찌하랴
畢生冤恨天應測	죽을 때 품은 원한은 하늘이 응당 헤아려주겠지만
竟死俘囚鬼亦疑	끝내 포로로 잡혀 죽으니 귀신도 의아해했다네
楸壠殘灰縈蔓草	선산 언덕의 식어버린 재에는 덩굴 풀만 얽혀있고
荊花同氣剩連枝	밤태기꽃같은 同氣들은 連理枝처럼 남아 있네
自慙白首甘滄活	백발로 넘치도록 사는 삶 달게 여김 절로 부끄럽고
追憶前塵淚欲滋	지난 일들[前塵] 추억하자니 눈물이 넘쳐나네

53) 李範世, 『恥齋集』, 「憶省齋」, 105a면. “一別仍無書往還, 天涯迢遞杳音顏.”

54) 李範世, 『恥齋集』, 「哀友堂(李會榮)」, 104b면.

가 쓴 이견승에 대한 아래의 제문 「祭耕齋宗丈文」을 통해서 확인된다.

“桑田碧海로 갑자기 변하면서 公[李建昇]은 서쪽에서 나[李範世]는 동쪽에서 하늘가에서 서로 바라보며 그리워함이 지극했습니다. …… 매번 손수 쓰신 편지를 받아보면 情이 은근하고 말이 도타웠습니다. 편지 가득 간곡하게 파리머리만한 작은 글씨로 나에게 古文에 힘쓰도록 격려해주셔서, 제가 (古文을) 不朽하도록 도모하였으니, 어찌 제가 능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사랑해주신 은덕 때문입니다.”⁵⁷⁾

이견승은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하면서 가난을 자처하며 살고 있는 치재의 실력과 덕망을 알아보았다.⁵⁸⁾ 그래서 이견승은 먼 망명지에서 치재에게 古文을 익히도록 면려하였고, 치재 또한 자신의 고문 실력이 不朽하도록 권면하며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이견승의 가르침에 성실히 따랐다. 그러므로 치재에게 있어 이견승 또한 그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치재는 상해 南通으로 망명을 떠난 김택영과도 교유가 있었다. 어느 날 치재가 김택영에게 보낸 편지를 받은 김택영이 화답시를 지어 보내왔다.⁵⁹⁾ 이에 치재는 그 화답시의 운자를 사용해서 다시 김택영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金滄江(澤榮)在淮南寄示六絕仍和原韻以謝」⁶⁰⁾ 6수를 지어 보냈다. 아래는 그 중 한 수이다.

爲勉”

57) 李範世, 『恥齋集』, 「祭耕齋宗丈文」, 123b면. “桑海倏變, 公西我東, 相望天涯, 長懷忡忡. …… 每承手札, 情殷辭摯, 滿幅繾綣, 蠅頭細字, 勉余古文, 俾圖不朽, 豈謂余能由愛之厚.”

58) 李建昇, 『海耕堂收草』 卷4, 「士儀承宣(範世)次余送從子還國詩韻復用其韻而和之」, 51b-52a면. “吾宗有奇士, 降志隱巷陌. 方寸無俗物, 楊江滿眼碧. …… 誰知凌霄氣, 悵悵樊籠隔. 豈如謝鯤輩, 自好在邱壑. …… 瓣香若妄許, 后山非佳客.”

59) 金澤榮, 『詔護堂集』 合刊詔護堂集補遺 卷一, 「得李喬庭(範世)書(當在赴退翁下)」 “淮霜滿鬢閉門居, 故國親朋久已疎. 何處好風吹得到, 喬庭學士萬金書.”

60) 李範世, 『恥齋集』, 「金滄江(澤榮)在淮南寄示六絕仍和原韻以謝」, 12a면.

三載東岡賦索居	3년 동안 동쪽 산비탈에서 벗들 떠나 홀로 지내다보니
親朋零落世情疎	친한 벗들은 零落하고 세상의 情마저 소원해졌다네
今朝底事欣開眼	오늘 아침에 어쩐 일인지 기쁘게 눈을 뜨고 보니
萬里淮南有尺書	만 리 회남에서 한 자 편지가 왔다네(6수 중 제1수)

東岡은 동쪽 산비탈을 뜻하기도 하지만,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곳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시는 치재가 고향에서 지낸지 3년이 되는 1914년 무렵에 지어진 작품으로 추정된다. 김택영은 을사늑약 직후 上海로 망명을 떠났다. 사실 김택영은 치재의 종장인 이견창 때문에 文名이 널리 알려지게 된 인물이다. 치재는 그런 김택영과 조정에서 文獻備考 편찬 일을 함께 하고 駱山에서 술을 마시면서 마음으로 교류했었다.⁶¹⁾ 이처럼 친하게 교류하던 인물들이 망명을 떠나버리면서 情마저 소원해졌다. 그리움이 차오르던 어느 날 치재는 만 리 밖의 김택영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으니 그 반가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처럼 치재와 함께 신학문을 익힌 인물 가운데 이회종을 제외한 이상설·이시영·이회영·여준은 망명을 떠나 독립운동에 힘썼고, 대부분 망명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견승과 김택영 또한 망명지에서 지조를 지키며 살다 망명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치재는 평생 교류하던 인물들과 한 번 헤어진 후 그리워만 할 뿐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이는 망국의 현실이 가져다 준 비극이었다.

3.2 留民者들과의 교류

경술국치 후 국내에 머물며 치재와 여생을 함께한 인물로는 박풍서, 이회중, 김영한, 정인서, 정인보, 이견방 등이 있다.

그 중 치재와 평생 불가분의 교류를 가진 인물은 『치재집』 전체 詩題 344제 가운데 호 ‘稼軒’이 들어간 詩題만 79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박풍서이다. 두 사람 집은 10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박풍서의 몸이 허약

61) 李範世, 『恥齋集』, 「挽金滄江」, 95b면. “玉署聯床編史久, 駱亭對酒話心長.”

해서 잘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년 치재가 그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 동안 못 보면 걱정이 되어 치재는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재촉해서 달려갔고, 박풍서 또한 치재를 오기로 기약한 사람이 오지 않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렸다. 혹여 눈비로 길이 막히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찾아갈 수 없으면 서로 편지와 詩筒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교유를 하였다.⁶²⁾ 이처럼 빈번하게 만나고 시통을 주고받던 두 사람의 교유는 치재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치재는 함께 신학문을 익히며 교유한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망명을 떠나지 않은 족질 이희종과도 교유를 이어갔다. 이희종은 素奉家로 불릴 만큼 동두천과 연천 주변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었는데, 대부분의 토지를 팔아 만주와 露嶺 등지에 독립자금으로 보낸 인물이다.⁶³⁾ 치재 또한 이희종과 함께 독립자금을 거둬들인 일이 있는 것⁶⁴⁾으로 보아 두 사람은 무엇보다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뜻이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희종을 포함해 滄東 李昇圭(?~?), 정인서, 정인보 등이 어느 가을 날 술을 갖고 치재를 찾아왔다. 이날 치재가 지은 시 「松居滄東鈍山爲堂携酒而來竟日敘懷」⁶⁵⁾를 살펴보도록 하자.

衰病相尋興轉微	쇠하고 병드니 서로 찾아도 흥겨움 점점 줄어들고
秋懷更似送人歸	가을날의 心懷는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을 보내는 듯한데
會心正喜諸君至	마음에 흡족한 기쁨은 그대들이 찾아오는 것이요
舉目重嗟昔日非	눈을 들면 옛날의 그릇됨에 거듭 탄식하게 되네
痛飲仍須防熱淚	맘껏 마시면 뜨거운 눈물을 막을 수 있으련만
縱談還怕觸塵機	맘대로 이야기하다 세속의 機心에 저촉될까 두렵고
寒日暮灘聲急	차가워진 강물에 해저물고 여울물 소리 급해지니
奮袂空思試鐵衣	소매 떨쳐 일어나 부질없이 鐵衣를 시험할 것을 생각하네

62) 李範世, 『恥齋集』, 「朴稼軒六十一壽序」, 127b-128a면. “余家距稼軒居十里餘, 稼軒體弱不能步, 余每訪稼軒驩然相對. …… 數日不見, 輒復耿耿, 余促駕而往, 如赴人之約, 稼軒亦待余之切, 如有人期而不來. 值雨雪或有他故阻, 稍久專書相問詩筒絡繹.”

63) 민영규, 『江華學 최후의 광경』, 又半, 1994, 52면 참조.

64) 각주 28) 참조.

65) 李範世, 『恥齋集』, 「松居滄東鈍山爲堂携酒而來竟日敘懷」, 84a면.

하루 종일 회포를 풀던 이들의 이야기가 망국에까지 이어졌던 모양이다. 결국 치재는 소매 떨쳐 일어나 鐵衣를 시험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러나 치재의 말대로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늙어 쇠하고 병든 몸으로, 평생 책만 읽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옷을 입고 일제를 처단하러 나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재는 일제 처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처단에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였다. 이처럼 치재는 소소한 교유 속에서도 현실의 아픔을 토로하는 작품을 지었다.

치재와 교유한 정인서는 치재의 큰 妹弟 承文院副正字 鄭寅衡(1875~?)의 동생이다.⁶⁶⁾ 정인서가 일찍 과부가 된 치재의 누이동생을 잘 보살피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보다 특별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연희전문학교 동양사 강사로 간 정인서에게 치재는 시를 지어 보내는⁶⁷⁾ 등의 관계를 가졌고, 정인서는 훗날 『치재집』의 서문을 짓게 되었다.

치재와 교유한 인물로는 김영한도 있다. 치재와 김영한과의 교유는 정인보가 쓴 두 사람의 시를 엮은 『苔岑會心集』의 序文을 통해서 확인된다.

“몇 해 전에 내[鄭寅善]가 들으니 恥齋 李範世와 東江 金寧漢 두 어른이 서로 시를 지어 보냈는데 그 말이 매우 애통했다고 한다. 그 후 치재께서는 양주 골짜기로부터 漢江 近郊로, 동강께서는 옛날에 살던 樊里(현 강북구 樊洞)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서로 떨어진 거리가 수 십리가 못됨에 자주 왕래하면서 이틀 밤을 묵거나 또 더러 山水間으로 손을 이끌면서 시가 더욱 많아졌다.”⁶⁸⁾

치재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김영한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또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왔을 때는 자주 왕래하며 함께 묵기도 하고 산수 간을 다니는 등

66) 李範世, 『恥齋集』, 「恥齋遺稿序[鄭寅書]」, 1b-2a면. “余與公家有累世之好, 至相結親, 我嫂氏, 卽公之妹.”

67) 李範世, 『恥齋集』, 「贈鈍山」(鈍山方以延禧專門學校東洋史講師課赴教徒), 81a면. “如君卓犖更才情, 馳騁百家雙眼明. 病尙授徒趨遠塾, 貧仍僦屋傍西城. 談因強記河翻倒, 詩到工吟玉戛鳴. 繼世騷壇執牛耳, 交游到處喜相迎.”

68) 鄭寅善, 위의 책, 『蒼園文錄』1, 「苔岑會心集序」, 148면. “頃歲普聞李恥齋·金東江二丈, 以詩相寄, 和詞甚哀. 其後恥齋自楊峽遷寓江郊, 而東江故居樊里, 相距不數十里, 數往來, 留連信宿, 又或相攜山水間, 而詩益多.”

안 애통한 구절의 많은 시를 지으며 교유하였다.

치재와 교유한 인물로 정인보의 스승이자 치재의 宗丈인 이견방이 있다. 아래는 치재가 이견방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지은 시 「蘭谷宅小集」⁶⁹⁾의 일부이다.

(상략)

百劫吾生原有感 百劫의 내 생애는 원래 느껴움이 있지만
相逢歲莫若爲心 歲暮에 서로 만났으니 마음이 어머했으랴
一尊談笑殊堪慰 한 잔 술로 답소하며 깊은 위로 전하다보니
不覺窓前已夕陰 어느 새 창 앞엔 땅거미가 지고 있네

세밑에 치재는 이견방을 만나 술을 마시며 답소를 나누다 독립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괴로워하는 이견방을 위로하다보니 어느 새 날마저 저물었다. 시에는 치재가 이견방을 위로했다고 했지만 실상 치재는 자신에게도 위로를 건넸음을 알 수 있다.

치재는 少論의 집성촌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론가 인물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양명학과, 일명 강화학과 이견승·이견방·이상설·정인보 등과의 교유, 그리고 이상설과 함께 사랑채 뒷방에서 몰래 王陽明과 霞谷 鄭齊斗의 저술 및 江華所傳을 읽은 사실 등⁷⁰⁾을 통해 강화학과 인물들과 불가분의 교유를 가졌으며, 그들로부터 일정부분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재는 國亡 후 세속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확고하게 신념을 지키면서 살았다.⁷¹⁾ 그로 인해 꼭 필요한 교유 외의 교유는 자제하고, 기존에 교유했던 인물들과는 더 깊게 교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재는 여생을 함께했던 인물들과는 시로 아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교유관계를 이어갔다. 『태잠회심집』의 서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69) 李範世, 『恥齋集』, 「蘭谷宅小集」, 99a면.

70) 민영규, 위의 책, 51면 참조.

71) 鄭寅普, 위의 책, 『蒼園文錄』1, 「苔岑會心集序」, 148면. “變故以來, …… 恥齋猶能以孤介自持了.”

“동강과 치재의 시를 말하자면, …… 고국에 대한 슬픔과 나라 잃은 백성들의 상처를 오히려 기탁하였으니, 어찌 더욱 중히 여길만하지 않겠는가?⁷²⁾

이처럼 치재는 두견새의 피눈물로 이루어진⁷³⁾ 망국에 대한 슬픔과 나라 잃은 백성들의 상처를 기탁하는 작품 활동을 벌이면서 국내 유민자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다 생을 마감하였다.

4. 맺음말

관료 출신인 치재는 을사늑약 때부터 일제에 대한 항거를 표면화시켰으며, 경술국치 직전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관료로서의 저항적 삶을 마쳤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독립자금 모금,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신간회 활동 등을 통한 일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며 망국민으로서의 저항적 삶을 살았다. 따라서 치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이름에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은 고결한 삶을 살았음이 확인되었다.

치재가 교류한 인물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함께 신학문을 공부하다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을 떠난 인물들과 한 번의 이별로 더 이상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이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국내에 남아 있던 유민자들과 함께 두견새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망국에 대한 슬픔과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픔을 시로 토로하는 모습이었다. 그밖에 치재는 주로 소론가 인물들과 교류하였으며, 특히 이상설을 비롯한 여러 양명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그의 삶에 양명학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음도 확인되었다.

72) 鄭寅普, 앞의 책, 『舊園文錄』1, 「苔岑會心集序」, 149-150면. “言之東江恥齋之詩, …… 故國之戚, 遺民之傷, 猶有寄焉, 豈非其愈可重.”

73) 鄭寅普, 앞의 책, 『舊園文錄』6, 「恥齋李丈葬後一日作」, 130면. “一文一詩, 尋常間歷落, 半是啼鵲血.”

그의 저서와 문학작품 등에 대한 연구는 지면 관계상 다음으로 미뤄둔다.

[ABSTRACT]

A Study of Chi-Jae, Bum-Se Lee's Life and Social Intercourse

Lee, Eunyoung

This paper is about the life and social intercourse of Chi-Jae, Bum-Se Lee(1874~1940), who had resigned from government service for self-regularity just before Japanese colonial period started. He is the only son of Yi-A-Dang, Jung-Ha Lee(1846~1917), who played a important role as a Tomungamgyesa. As a promising youth passing the examination aforementioned at the age of 15, his resistance came up to the surface right after the Ulsaneukyack. After the Kyungulgukchi, he helped the independence with fund-raising and activity of Shinganhoe as a homeless race until his death.

He had 2 different attitudes to his acquaintances from Kyungulgukchi. To the one group, who studied the new-learning with him, he felt sorrow at parting to the persons going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ir exiled places. With the other group he wrote poems about the sorrow of the national ruin and the emotional injury of the ruined people in Korea. In addition, the fact is confirmed that he associated with the school of Wang Yang-ming including Sang-seol Lee.

Key words : Chi-Jae, Bum-Se Lee, Yi-A-Dang, Jung-Ha Lee, Sang-Seol Lee, Si-Young Lee, Period of Japanese Occupatin,

참고문헌

□ 기본자료

- 李範世, 『恥齋集』(후손 소장, 1975)
——, 『新千字』, 국립민속박물관, 2012.
金澤榮, 『韶護堂集』(한국고전번역원 문집총간 347집)
李建昇, 『海耕堂收草』(서울대 규장각본)
黃 玟, 『黃玟全集』, 아세아문화사, 1978.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 단행본

- 민영규, 『江華學 최후의 광경』, 又半, 1994.
鄭寅普, 『舊園鄭寅普全集』,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박혜령·함한희, 『(20세기 어머니)이석희의 삶과 근대이야기. 1』, 국립민속박물관, 2013.

□ 논문

- 박 환, 「李會榮과 그의 民族運動」, 『國史館論叢』 제7집, 1989. 229-247면.
이은영, 「二雅堂 李重夏의 自靖詩 研究」, 『국제언어문학』 제34호, 국제언어문학회, 2016. 177-204면.

□ 기타자료

- 『법률신문』(2012.02.06.)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7』(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삼천리』 제10호(1930.11.0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이 논문은 2017년 3월 1일 접수되어 4월 3일까지 심사받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